

□ 한국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견해

지역연합, 소외 집단 참여가 해결의 열쇠

얼마후면 제15대 대선이 치러진다.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을 때마다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인들에 의해 더욱 깊은 갈등의 골이 패였다. 현재의 지역주의는 지역패권을 넘어서 하나의 지역이테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우리 신문사에서는 이번 기획을 통해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갈등과 지역감정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국정논의

1. 한국 지역주의의 발생과 고착화 과정
2. 한국 지역주의의 특성
3. 한국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견해

오 수 열

(조선대 정책대학원장)

198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서는 정치과정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지역주의는 15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방곡적 병폐'라고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주의가 이처럼 정치발전은 물론이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소홀해 왔다. 이는 지역문제에 대한 논의가 자칫 특정지역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지역적 당파성'이 작동하는 현실속에서 불가피했다.

최근 일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논의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의의 확대 재생산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지역주의와 관련된 논의에 일대 활황화를 가져온 계기는 무어라 해도 손호철 교수(서강대)와 강준만 교수(전북대)의 논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원래 지역주의 문제 보다는 한국 정당의 사당화 및 비민주성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었고, 이와 관련되어 '3김' 특히 김대중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던 손호철교수에 대해, 한국정치가 지나온 지역갈등, 군사통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에 대한 양비론적 공격이 결과적으로 보수 기득권층을 돕는다고 보는 강준만교수의 비판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띠고있는 지역적 대표성 때문에 자연스럽고 지역주의의 문제로까지 논쟁이 확대되었다.

지역주의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소홀

이렇게 볼 때 한국적 현실에서 지역주의는 그 본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지역

감정', '지역갈등', '지역대립'과 같은 부정적 의미로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지역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해소를 위한 노력들도 소홀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역갈등이 깊어져 온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첫째 특정지역(호남)에 대한 여타지역민들의 편견, 둘째 지역간 경제적 불평등, 셋째 정치권력의 지역패권 등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이들 대부분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보수 기득권층의 지속적 권익유지의 기능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김영삼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김만중박사(서울대)는 정치적 지역주의의 동원구조를 '영남의 지역패권', '호남의 지속적 도전과 저항', '비호남의 호남에 대한 경계와 부정적 편견' 세가지로 집약시켰다.

한국민주주의

지역패권주의로 무기력해져

한편 황태연교수(동국대)는 한국의 지역주의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마이클 헤치터의 '내부식민주의'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5대소외지역민과 영남서민연대'를 통한 지역연대 극복노선을 전개하고 있다.

황교수는 한 논문에서 경상도 출신 대기업이 1989년 현재 대기업 매출액의 61.3%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은행돈의 57.8%를 독식한 반면, 5대 소외지역은 나머지들을 '양아치들'을 낳았'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데모스트릭 시민정신이 없는 한국의 '데모크라시'는 심각한 내적

와해상태에 처해 있으며, 한국은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이 민주주의는 탄생하자마자 죽은 군사독재자가 남긴 높은 정치경제적 지역패권구조와 지역패권주의로 인해 무기력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의제하에서 민주주의의 구현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대의제하에서 국민투권의 실현은 사실상 선거에서의 투표로 나타난다. 문제는 선거가 완전히 자유로운 유권자의 의사 반영이느냐 하는 데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역주의가 놓여 있다.

변증법적 역사발전론을 따르지 않더라도 역사는 변동과 대립속에서 발전하여 왔고, 정제성은 부패로 이어져 왔음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정권교체의 부재가 빚어온 많은 문제점은 민주주의의 선진국가인 영국에서 1979년 이래 지속된 보수당의 장기집권이 초래한 이른바 '영국병'과 관련하여 볼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준다.

지역주의는 비교적 좁은 지역적 범주에 근거한 정서적 공감대인 '향토주의'와는 다르다. '향토주의'가 지리적 인접성과 같은 접점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애향심'이라면, 지역주의는 '지역의 정치화'를 전제로 하는 특권지역과 차별지역의 수직적 갈등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출생지에 따른 정치적 의미를 말소하고 '지역성분제'를 타파하려면 지역평등의 정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평등은 결코 패권지역의 시혜물이나 기회주의적 인간들의 앞선물이 아니라 차별받는 소외지역 당사자들의 투쟁과 노력에 의해 쟁취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국가의 중앙집권성을 완화하고



▲한국적 현실에서 지역주의는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지역감정속에서 지속적 권력유지 장치로 작용하였다

소외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인적충원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인적충원에 있어서는 배려를 통한 '분권화' 또는 '지역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지난날 중앙집권적 독재정치로 말미암아 커다란 폐해를 겪었던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에 물론이고 이탈리아나 영국도 이러한 체제개혁을 통하여 '참민주'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주의 타파위해

지역 평등 정착 필수

한국의 현실에서 30여년에 걸친 지역패권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

의 대응적 결단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간의 연합이 도모되어야 한다. 이른바 패권에 저항하는 지역간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동일하게 억압당해온 다른 소외집단의 참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찍이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진보적 변혁과 관련지어 소외지역인 남부 이탈리아 지역민과 패권적 북부지역의 소외민 노동대중을 결함시키는 계급·지역동맹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호남·충청의 연합에 영남지역의 소외민 노동자, 동맹계층을 함께 묶는 연대가 이루어 진다면 한국의 고질적 지역패권을 허물고 새로운 등권적 지역연합의 길이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 서평-문화커뮤니케이션론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론적 대화모색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 이론적으로 점검하는 계기

스튜어트 홀과 더불어 '문화이론'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영국적 전통의 문화이론을 대중화시킨 이론가 존 피스크(John Fiske)의 '문화커뮤니케이션론'(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번역본이 출간됐다.

강태완(경희대학교·언론정보학부)교수가 옮긴 이 책은 피스크의 명성을 커뮤니케이션학계에 널리 알리게 된 것으로 미국식 과정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기호학과 함께 비교·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션학의 양대전역 간에 이론적 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 있다.

비록 과정학과 기호학과 양대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보이론, 인지언어학, 대중문화론, 언어행위론, 해석학 등 다양한면에서도 광범위한 인접학문의 이론들이 동원되고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이다.

이 책의 피스크의 폭넓은 이론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일반화된 교환매체'로서의 미디어의 영향력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영역이 더욱 다변화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과정학과' '기호학과'라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양

대 주류중에서 피스크가 무게를 두는 것은 '기호학과'이지만 최근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분석의 유용성으로 본다면 그리 큰 치우침은 아니다. 여기서 피스크가 강조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은 곧 문화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문화연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학이 지닌 편협한 이론적 토대에서 벗어나 인문, 공학, 예술 등 사회의 전 영역에서 활용되는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론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현 편집자)

신 간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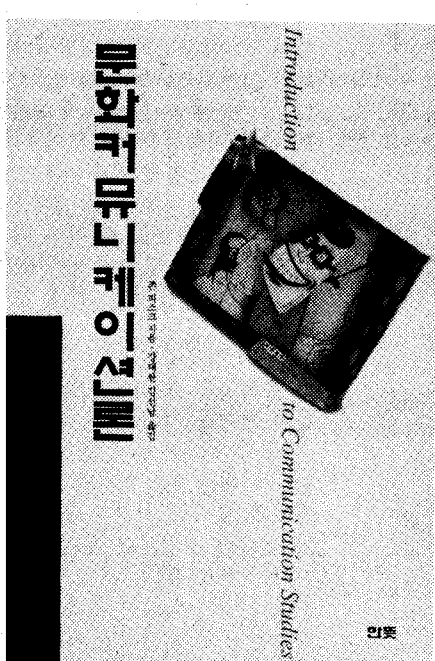
문화와 전환기의 시대정신 이 책은 1990년대에서 2천년대로 넘어가는 광활한 전환기의 시대적 입지점에서 작가들이 문화적 토양의 저변에 숨겨놓은 <감추인 보화>를 탐색한 김중희(경희대) 교수의 평론집이다.

제1부는 전환기의 변동하는 시대 및 사회의 모습을 소설을 통해 검증하려 한 글들 위주로 다루고 있다. 제2·3부는 사회사적 상황이 수평적 측면에서, 역사적 상황의 수직적 측면에 대응한 소설 비평문을, 제4·5부는 유사한 관점으로 씌어진 시론과 수필문을 각각의 묶음으로 하고 있다.

독신이 아니라 독립이다 이 책은 현재 열심히 자기인생을 가꾸어 나가고 있는 독신 여성과 남성들의 취미를 바탕으로 독립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주로 독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여성들과 앞으로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의 大學 지금 우리의 대학교육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대학을 관장하는 교육부 모두의 문제이다. 교육행정인으로서 느끼는 바와, 다른 관계자들이 적은 사찰들을 바탕으로 대학 직원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점을 저술하고 있다.



<존 피스크 저, 강태완 역, 한빛>

세계로 미래로 경희로!

98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21세기로 향한 문이 있습니다

언론정보대학원(야간) ☎ 967-7083/961-0560~1

다지탈영상학: 959-0244, 961-0916

1. 모집학과 및 과정

1.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1) 신문방송학과 (신문 전공, 방송 전공) 2) 광고학과 (광고 전공) 3) 출판학과 (출판경영 전공) 4) 대중매체학과 (대중매체 전공) 5) 홍보학과 (홍보 전공)

2. 언론연구과정: 교수상의 학력 소양으로서 언론계 종사자 및 언론계에 진출할 학력 희망

3. 스포츠·토론전문과정: 사회 각계의 지도자를 포함한 스포츠·토론기법수강을 원하는 일반인

4. 디지털영상제작전문과정: 그래픽디자인, 멀티미디어기획, 애니메이션 연출자 및 기타 디지털 영상제작에 관심있는 일반인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7년 11월 10(월) - 11월 19일(수)

3. 원서교부 및 접수 장소: 본 대학원 교학과(경정대학관 4층)

4. 시험일시 및 장소

1. 석사과정, 언론연구과정: 1997년 11월 29일(토) 오후 2시 본대학원(경정대학관 4층)

2. 제6기 스포츠·토론전문과정: 1997년 12월 6일(토) 오후 2시 본대학원(경정대학관 4층)

3. 제22기 디지털영상제작전문과정: 1997년 12월 6일(토) 오후 4시 본대학원(경정대학관 4층)

5. 전형방법

1. 석사과정: 전공, 면접

2. 연구과정 및 언론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경력참조)

3. 스포츠·토론전문과정 및 디지털영상제작전문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전

1. 석사과정: 동문 및 석사과정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2. 스포츠·토론전문과정 및 디지털영상제작전문과정: 본교동문 및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정보대학원(야간) ☎ 745-5889/(0331)280-2130~1

1. 석사과정

1.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	인원
지역개발행정(지역개발행정전공 사회복지전공), 경영정보, 무역정보, 회계, 중소기업, 세무, 기계공, 전자공, 전자계산, 정보통신, 제어계측, 산업공, 화학공, 자동차공, 전파방송, 식품공, 산업디자인(사각디자인전공, 공업디자인전공), 스포츠의학과	○○명

* 단, 화학공학과는 신소재공학으로 명칭변경 신청중에 있음(교육부 인가사항)

2. 지원자격

-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 2)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 지원 학과는 출신 대학의 학과와 동일하지 않아도 가능함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4. 전형일시 및 장소

내 용	일 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11. 3(월)~11. 14(금) (09:00~17:00) (토, 일요일은 휴무)	본 대학원 교학과
구술시험	1997. 11. 22(토) 13:30	본 대학원 강의실

5. 특 전

- 1) 본교 동문 및 군인, 공무원은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 2) 실무경력에 있는 분은 우선적으로 고려함

- 3) 사회복지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2. 최고경영자 과정

1. 지원자격: 고공무원, 공·사기업 경영자 및 임원, 개인사업자, 기타 사회단체의 간부 등(학력제한 없음)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3. 원서교부 및 접수: 97. 11. 17(월) - 11. 25(화) (토, 일요일은 휴무)

4. 면접일시 및 장소: 97. 11. 27(목) 14:00, 본 대학원

5. 특 전: 부부장학 개설

- 1) 부부장학 개설: 계약형 배우자에 한하여 일일교육을 이수하면 부부장학 수료수여

2) 국가공무원, 군·경 국가직 합격자는 동문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수료자의 경우 우후 개설된 강좌에 대하여도 원하는 강좌는 무료수강이 가능함

* 교통거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 대학원 까지 30-40분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http://uis.kyunghee.ac.kr/

체육과학대학원(야간) ☎ 961-0770~1

1. 모집학과 및 과정

1. 석사과정: ○○명

- 1) 체육학과: 체육과학전공, 운동재활전공

- 2) 경기지도학과: 경기지도전공, 스포츠마케팅전공

- 3) 건강관리학과: 건강관리전공, 체력관리전공

- 4)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전공, 레크리에이션전공

- 5) 체육산업경영학과: 체육산업경영전공, 체육시설관리전공

2. 최고체육지도자과정: ○○명

- 1) 스포츠, 레저 지도자 과정

- 2) 스포츠 센터, 체육관 경영자 과정

- 3) 운동용품 과정

- 4) 유아체육지도자 과정

2. 지원자격

1. 석사과정: 1) 4년제 대학 졸업자

-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최고체육지도자과정: 학력제한 없음

3. 전형일시

1.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 11(화)~11월 17(일)

2. 원서교부 및 접수: 본대학원 교학과(체육대학관 2층)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7년 11월 22(토) 오후 2시 본대학원(체육대학관 2층)

4. 합격자 발표: 1997년 12월 1(일)

4. 전형방법

1. 석사과정: 전공필기시험 및 면접

2. 최고체육지도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국제법무대학원 ☎ 961-0904~5 FAX 961-9134

1. 모집학과 및 인원

구 분	학 과 과	모집인원
석사과정 (야간)	국제통상법학과	각 학과별 ○○명
	보험·해상법학과	
	국제상사법학과	
	국제조세법학과	
연구과정(야간)	국제통상법학과	○○명
국제법무지도자과정(야간)	석사과정과 동일	○○명

2. 지원자격

과 정	지 격	비 고
-----	-----	-----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과정 석사과정과 동일

국제법무지도자과정 공·사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정부 및 유관기관의 간부, 군인, 각급 사회단체 임원, 중·소기업체 대표 및 각종 지도자

석사과정과 동일

학력제한 없음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전형일시

구 분	석사, 연구과정	국제법무지도자과정
-----	----------	-----------

원서교부 및 접수 97. 11. 3(월)~11. 13(목) 97. 11. 3(월)~12. 26(금)

접수 97. 11. 15(토) 14:00 97. 12. 27(토) 14:00

합격자발표 97. 11. 20(목) 14:00 97. 12. 29(토) 14:00

합격증교부 및 등록 97. 11. 20(목)~11. 29(토) 97. 12. 29(토)~98. 1. 10(토)

5. 제출서류

석사, 연구과정	국제법무지도자과정
----------	-----------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학위등록번호 기재)

다. 대학원학력(예정)증명서 1통(학위등록번호 기재)

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마.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

바. 사진 4매(입학원서 붙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복지대학원(주간) ☎ (0346) 556-7621~8

1. 1993년도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기관

2. 전형방법:

- ① 평가시험: 영어시험 및 국문논술 I(사서), II(사회과학)

- ② 1·2차 면접

3.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교)의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자와 동등한 자

4. 특 전:

- ① 펜실베이니아대 국제관계학과 공동수업 및 영어연수

- ② UN연수 지원 및 해외지도자 연수(교비부담)

- ③ 해외 명문대학 및 모스크바대학교 박사과정 유학 지원